

기고

김용호 여수소방서장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는 이렇게

지난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190여명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2014년 장성 효사랑 병원 화재로 21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는 노인 요양관련시설에서 28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노인 관련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환자 등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한 다수의 어르신들이 수용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와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침실 이동이 원활하지 않고 출입문 잠금장치 등 피난약자 시설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화재 시 진압대원의 건물진입과 요구조차 피난상 징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간시간대 별실 당직인 원이 소수으로 다수 환자를 대피시키거나 초기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화

재 등 긴급상황 시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건물내부로 진입해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대 진입장'을 지정하고, 자율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소방간부 협회·지도방문과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등 안전대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피난약자시설은 화재 시 급격한 연기 확산으로 인해 대형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 관계자에 의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화재 진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해야 하며,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방, 난방용품 등 화기취급시설 위험요소는 없는지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화재 시 119신고 인명대피, 초기소화 등 관계자 개인별로 부여된 임무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종사원 주·이간 균무여건을 빙영한 자위소방 대를 편성하고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각 층별 소방시설 등 위치도 및 대피 안내도 비치와 훈체어·침상 등 수직보행이 어려운 환자의 현실적인 대피동선을 확보하고, 재설자별 대피능력을 감안한 층별 요양실 등을 배정하는 한편, 전기·기계 노후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CCTV나 순찰을 통해 취약장소를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독자투고

회전교차로의 안전한 통행방법은?

도로 주행 중 교차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중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이러한 안전상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대두되고 있다.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낮추고 통행속도도 오히려 향상된다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지형에 맞는 회전교차로 1,592개소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회전교차로는 자동차들이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 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 방식으로 여기에는 신호등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줄어 교차로 소통이 원활해지고, 연료 소모 감소로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며, 나아가 대기오염 배출량 감소로 미세 오염 방지 등 국민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는 방법은

"회전교차에서 먼저 주행(회전) 중인 자동차가 있는 경우, 후행 자동차는 양보 선에서 정지했다가 선행 자동차가 지나간 후 서행으로 진입하여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먼저 진입하여 회전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들어들기, 과속 진입, 양보 불이행, 방향지시등 작동 불이행 등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회전교차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는 규정된 속도에 맞게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규정속도 및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회전교차로 통행의 기본원리를 숙지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의 원활한 운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양보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문두석 / 무안경찰서 승달파출소 경위

고속도로 교통사고 2차사고 예방법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의하면 5년 간 발생한 고속도로 2차 사고 10건 중 6건은 사망사고로 이어진다고 한다.

게다가 2차 사고 치사율은 1차 사고보다 5배나 높았다고 전했다.

그만큼 2차 사고는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나기 쉽기에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해선 아래의 안전요령을 숙지해야 대비할 수 있다.

첫째,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즉시 비상등을 켜자.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비상등을 작동해야 한다.

차가 많이 이동하는 도로에서는 비상등을 점등해 다른 운전자에게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둘째,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

차량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차를 갓길과 같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게 중요하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함으로선 신속하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걸 항상 숙지 하여야 한다.

셋째, 차량 후방에 삼각대 설치를 잊지말자.

안전삼각대는 낮에는 후방 100m 뒤, 밤에는 200m 뒤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미리 안전삼각대를 트렁크에 구비하여 위급한 상황에 절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화 하자.

넷째, 사고지점과 멀리 떨어져 신고하자.

운전자와 탑승자는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를 하였다면 신속하게 도로밖으로 사고지점과 멀리 떨어져 안전을 확보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119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도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이간에 2차 사고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는 자료가 있으니 이간 운전을 할 때에는 더욱 집중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이희창 / 화순동북안전센터 소방교

社說

법정감염병 예방이 답이다

수두, 백일해, 유행성아이신염 환자가 늘면서 지난해 법정감염병 환자가 1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보다 11.5%, 10년 전인 2008년보다 4.7배 늘었다.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 환자는 597명으로 최근 8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2018년도 감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하면서 국가 간 교류 확대와 기후 변화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신종감염병의 등장으로 공중보건학적 위기 가능성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정감염병으로 지난해 사망한 사람은 383명이다. 주로 의료기관에서 전파되는 항생제 내성균인 '카비페넴계 항생제 내성 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으로 가장 많은 143명이, 폐렴구균으로 115명이, 아생진드기 등에 물려 발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48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두는 매년 계절적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 완료해야 할 것이다.

신문으로 배우는 오늘의 속담

"자식을 길러 봐야 부모 은공을 안다"

부모의 입장이 되어 봐야 비로소 부모님의 길러 준 은공을 해아릴 수 있다는 말.

등록번호 광수자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 전화 (062) 229-60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대표 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